

SK, 이웃사랑 성금 100억원 기탁

SK가 이웃사랑 성금 100억원을 기탁했다.

SK 자원봉사단장인 김신배 부회장은 12월28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“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뜻 깊은 활동에 SK가 동참하게 돼 기쁘다”며 이웃사랑 성금 1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윤병철 회장에게 전달했다.



또한 “SK의 행복경영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다”면서 “더 많은 이웃들에게 더 큰 행복이 되어 전달되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

SK그룹도 9월 SK 행복나눔의 밤에서 최태원 회장의 즉석 제안으로 시작된 소액기부 캠페인을 통해 모두 2억1000만원을 모금해 전국의 결식아동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데 사용키로 하고 모금액

을 행복나눔재단에 전달했다.

또 SK에너지, SK텔레콤, SK네트웍스 등 전 계열사의 444개 봉사팀에 소속된 CEO와 임직원 1만2000여명이 저소득층 쌀감 지원, 노숙자 무료급식 등 각 사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채로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.

뿐만 아니라 지난달 최태원 회장과 김창근 SK케미칼 부회장, 최두환 SK텔레콤 노조위원장 등 SK CEO와 노조위원장 17명은 부천시에 있는 사회적기업 고마운손에서 핸드백 부분품을 조립하고 포장하는 봉사활동에 동참했다.

<화학저널 2009/12/28>